

전국 최초 청렴 퍼실리테이터 양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목적
내부 구성원 직접 참여로
개선책 도출 필요 판단 따라
전북교육청 본청 포함
지속기관 등 21명 양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국 최초로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렴 퍼실리테이터 양성은 수평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청렴 리더십을 향상시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개선책 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24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 청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에는 본청을 비롯해 지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 소속 6급 이상·장학사·장학관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촉진자 역할을 비롯해 소통의 기술, 성찰스킬, 아이디어 도출형 회의 운영, 회의기획스킬 등



지난달 22~24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 청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지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 소속 6급 이상·장학사·장학관 등 21명이 참석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기술을 실습 등으로 진행했다.

총 3일간의 교육을 마친 참여자들은 한국언어선리닝협회로부터 청렴 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했다.

한편 청렴 퍼실리테이터들은 1기관

(부서) 1청렴 실천과제 실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찾아가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등 부패 제로·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조직 내 소통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다"면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청렴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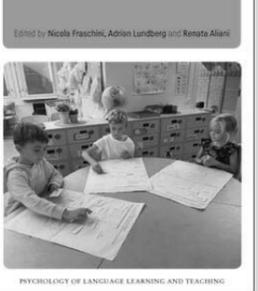
언어정책 분야 연구에 새 방법론 제시

전주대 박현진 교수, 외국어교육 심리학 시리즈 공저 참여

전주대학교 박현진 교수(한국어문학창작학부·사진)가 외국어교육 심리학 시리즈 공저로 참여한 책이 출간됐다.



ADVANCING LANGUAGE RESEARCH THROUGH Q METHODOLOGY



7월 31일 전주대에 따르면 영국 출판사인 Multilingual Matters는 외국어교육, 제2 언어학습, 언어정책 등에 관한 연구 분야 전문 출판사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Q 방법론을 활용한 언어교육 및 언어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엮은 책이다.

특히 전 세계 19명의 우수 연구자 중 한 명인 박현진 교수는 이 책 10장에 'A Q methodology evaluation of a training program for community interpreters and translators'라는 연구를 실었다.

이는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커뮤니티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연구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 각 장에서는 정체성, 동기, 감정, 교사의

외국어교육 심리학 책 표지

신념, 언어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탐구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의 공저자인 박현진 교수는 "이 책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책 출판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온라인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 강화... 교권전담 변호사 2명으로 증원

전북자치도교육청, 변호사·장학사·상담사 한 팀 이뤄 학교급별 원스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월 1일자로 교권전담 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 보호팀에 변호사 2명과 장학사 2명, 상담사 2명이 각각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법률상담 및 현

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구 및 컨설팅 현

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습자 중심 교육관리 중요"

日 나가사키대학 타다 교수, 전북대서 특강

일본 나가사키대학에서 교육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아키히데 타다(Akihide TADA) 교수가 7월 31일 전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타다 교수는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나가사키대학의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나가사키대학의 교육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타다 교수는 "대학생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주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책을 찾는 능동적 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라며 "나가사키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입학생을 받아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지에 대한 세 가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과감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가사키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과 여러 내



용을 공유해 양 대학이 학생 교육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학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다 교수는 이날 양모봉 총장과 박영기 교학부총장, 이동현 교무처장, 백기태 기획처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을 만나 양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외국인 학생에 '특별한 경험' 선사

전북대 필리핀코리아 프로그램 '호응' ... 학생 78명 참여
한국문화 관심 많은 학생 다수... 유학생 5000명 유치 기반

전북대학교 필리핀코리아(Feeling Korea) 프로그램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7개국 11개 대학에서 온 7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한국어 수업과 오후 문화체험 및 필드트립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한복 체험, 비빔밥 체험, 한지 공예, 수제 도장 만들기, 무주 태권도원 방문, 순창 정류 체험관 탐방, 익산 국가무형



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방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대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 문화체험을 유학생 유

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14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도내 곳곳에 위치한 우수 관광자원을 해외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필리핀코리아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우리 대학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향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